OFS 동서울지구형제회 소식지 제37호(6월호)

에지디오

월 보 2020-6월호
통 권 제 37 호
2020년 6월 25일 발행
2017년 3월 5일 설립
e.mail:egidio-ofs@daum.net

발행인 : 김광일 대건안드레아 편집인 : 지인순 아녜스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9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308호

【동서울 지구(에지디오)형제회 실천 목표: 권고 말씀 11】

"다른 사람의 악행을 보고 분개하지 말 것입니다."

사부 성 프란치스코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을 함께 하고 있는 이 때 형제·자매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5월17일 동서울지구형제회 선거총회에서 봉사자로 선출된 김광일(대건안드레아)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전 봉사자(정구호 대건안드레아)님과 평의원 여러 분에게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구형제회를 위해서 3년 동안의 수고와 헌신적으로 봉사해주신 수고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 후보자로 이름이 거론될 때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거부를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겸손이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교만이라 생각했기에 남다른 고민과 번뇌 참으로 여러 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추천에 기대를 걸어보았습니다. 저의 작은 희망은 벽에 부딪쳤고, 그래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위로를 스스로 하면서 가볍게 순명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가볍더군요.

앞으로 새롭게 태어난 제2기 동서울지구형제회가 3년 동안 지켜야할 실천목표로 사부님의 '권고말씀 11' 을 우리 평의원들은 조심스럽게 짧은 기간이지만 워크숍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실천목표는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영적권고 11. 다른 사람의 악행을 보고 분개하지 말 것입니다

하느님의 종은 죄 외에 어떤 일도 못 마땅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죄를 지을 경우라도 하느님의 종은 이 죄를 보고 사랑이 아닌 다른 이유로 흥분하거나 분개하면 그 죄를(판단할 하느님의 권한을) 자기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참조: 로마2,5). 어떤 일 때문에도 분개하거나 흥분하지 않는 하느님의 종은 진정코 아무 소유도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마태22,21) 돌리면서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겨 두지 않는 사람은 복됩니다.

1) 종이란 무엇일까요?
종이란 그 뜻을 알아보면 온전히 주인의 뜻을 받아들이며 자기의 뜻이나 삶, 설계 등으로 살지 않고 오직 주인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인이신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불행히도 우리는 그 삶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부 성 프란치스코의 삶에서 우리는 길을 찾고자 사부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2) 우리의 주변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의 잘못된 죄나 행동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나의 교만과 자만심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상대보다 더 나은 우월한 사람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기에 교만하고 가난하지 못한 자신이 아닐까요? 죄인이기 전에 나의 형제·자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로 돌려야 하는데 그 구별 또한 우리는 하지 못하고 하느님의 것을 황재에게 돌리고 황재의 것을 하느님께 돌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 평의회는 작은자의 삶으로 동서울지구형제회의 6개 단위형제회의 평의원 및 회원들과 함께 형제적 사랑을 실천하는 재속프란치스칸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어느 한 사람의 봉사자나 평의회만으로는 불가능 할 것입니다. 단위형제회 평의회를 중심으로 회원님들께서 하나가 될 때 '사랑애' 의 실천은 가능할 것입니다.

「찬미받으소서」5주년 기념 미사 - 강우일 주교님 강론 중에서 발췌

❖ 기후위기와 코로나 이후의 삶

존경하는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2015년 6월 18일 반포하신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가톨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생태 위기를 올바로 인지하고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시대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찬미받으소서」 회칙이 발표되고 나서 6개월 후인 2015년 12월 세계 196개의 국가의 대표들은 프랑스 파리에 모여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를 열고 단계적으로 기후 위기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에 힘을 모으자고 합의했었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45%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 제로를 달성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예민하게 통찰하고 우려하시는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이 기후변화 협약 총회에 앞서서 세계 가톨릭 교회 전체가 오는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한 주간 동안 모두 한마음 한 몸으로 궐기해서,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정신과 지침을 되새기며 우리 누이인 지구를 살리는 행동에 동참하자고 호소하고 또 초대하셨습니다.

작년 2019년 11월 5일 세계 153개국 11,058명의 과학자들은 지구가 기후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지구를 보존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기후 위기는 인류에게 막대한 고통을 가져다줄 것이며, 이제는 허비할 시간이 없다. 위기는 이미 우리 앞에 도달해 있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예상한 것보다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되어 인류와 생태계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은 옛날에도 더웠지만, 그래도 해가 지고 나서 밤이 되면, 그런대로 기온이 내려가서 밤잠을 설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밤에도 식지를 않아서 열대야로 밤잠 설치는 일이 연례 행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북극의 빙하는 지금 추세로 간다면 10년 후에는 북극 빙하가 전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내륙에는 벌써부터 사막화가 진행되어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서 죽음을 무릅쓰고 사막을 건너서 이주 행렬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마존 지역에는 엄청난 면적의 열대 우림이 개발업자들의 벌목과 방화로 급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숲이 사라지면 그만큼 강수량이 줄고 지구 지표면의 온도 상승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 우리 현대인들의 이런 끝없는 방종과 탐욕에 대해 지구 생태계가 코로나19라는 경고의 표징을 보냈습니다.

세계 석학들은 코로나19 위기의 주요 원인을 기후변화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사스, 메르스, 지카 같은 팬데믹이 발생한 것은 기후 변화로 야생생명의 이주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물과 식물 그리고 바이러스까지 기후 재앙을 피해 탈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이들이 인간 곁으로까지 다가왔고, 바이러스는 동물의 몸에 올라타서 우리 곁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산림이 파괴되고 동식물의 생태 질서가 무너지고 바이러스들이 조용히 지내던 그들의 보금자리에서 쫓겨나서 인간 생활권까지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사태는 하느님께서 아름답게 빚으시고 조화롭게 배열하신 피조물들을 마구잡이로 약탈하고 멸종시킨 인간의 횡포에 대해 생태계가 들어 올린 저항의 깃발입니다. 인간의 회심과 속죄의 징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촉각을 집중하고 이제는 종전과 다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세계의 지성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기후 위기, 기후 재앙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국민 전체가 이제 정말 예민한 생태 인지 감수성을 갖추지 않고서는 우리 공동의 집, 우리 누이 지구의 미래가 열리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홈페이지)

◈ 교황님을 위해, OFS를 위해 기도를 바칩니다.

7월	보편지향 – 우리 가정: 우리는 오늘날의 가정이 사랑과, 존경 및 훈육이 동반되도록 기도한다. OFS: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및 파푸아 뉴기니아(총회)의 국가형제회를 위하여, 멕시코의 국제유프라총회를 위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 .
8월	복음전도를 위하여 – 해양세계: 우리는 바다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가운데 선원, 어부 및 그들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한다. OFS: 앙골라(FPV) 및 칠레(총회)의 국가형제회를 위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 .

동서울지구 평의회 소식

▣ 2020년 제38차 평의회 보고

ㅇ 일시: 2020년 6월 11일(목) 오후7시 지구사무실

ㅇ 참석: 11명중 9명 참석

ㅇ 협의 안건: 종이 없는 평의회 운영⇒ 평의회 자료를 프린트 출력하지 않고 모바일 자료 활용, 소식지 '에지디오' 는 지면 발행하지 않고 파일로만 발행

▣ 봉사자 보고 〈김광일 대건안드레아〉

ㅇ 2020년 5월 23일(토) : 업무 인계인수

ㅇ 2020년 5월 23일(토) : 서울 3개 지구형제회 봉사자 및 봉사자 만남(6명 및 서서울지구형제회 영보님)

ㅇ 2020년 5월 30일(토) : 지구형제회 평의원 워크숍

▣ 부봉사자 보고 〈이청조 요한보스코〉

ㅇ 2020년 6월 15일(월): 글라라의 집 업무 인계인수

▣ 회계 보고 〈유옥화 노엘라〉

- 일반회계(2020.5.1.~5.30)

수 입		과 목	지 출	
누 계	월 계		월 계	누 계
75,800,815	70,326,620	전월이월금		
8,610,500	3,649,600	회 비		
		자선비		
2,804,000	1,544,000	행사비		
1,649,000	546,000	후원금		
116,300		정평창보		
50,000	50,000	잡수입		
2,591,371	2,137,216	이자수입		
		국형의무금	1,094,880	2,583,150
		영적보조비	400,000	2,000,000
		교육연수비		
		회의비	410,000	857,040
		행사비	1,946,250	2,546,250
		부서활동비		137,000
320,000	64,000	사무통신비	111,410	847,040
3,780,000	756,000	관리비	1,131,310	5,650,680
		인건비	393,610	1,940,410
		자선비		
		경조비		296,000
		후원금	1,200,000	6,375,600
		정평창보		
		비품비		
		잡지출	800	103,200
19,921,171	8,746,816	월계	6,688,300	23,336,850
		차월이월금	72,385,136	
86,975,170	74,350,050	합계	79,073,436	95,721,986

- 5월 글라라의 집 후원금

1. 글라라형제회: 99,000원,
2. 실베스텔형제회 : 185,000원,
3. 엘리사벳형제회 : 182,000원,

▣ 서기 보고 〈지인순 아녜스〉

ㅇ 5월 평의회의록 및 소식지 발행&발송

ㅇ 공문서 접수 12건, 발송 8건

ㅇ 인트라넷에 새로 도입된 '회원현황통계' 시험운용 및 단위형제회에 5월부터 입력 요청

▣ 양성 보고 〈김혜옥 리디아〉

ㅇ 5/23(일) 5월 양성자학교 / 코로나 19로 휴강

ㅇ 5/27(수) 양성교재 편집팀 회의 / 코로나 19로 취소

ㅇ 5/30(토) 2020년 동서울지구 종신서약 청원자 피정 진행

- 종신서약 청원자 22명 참석

(글라라 6명, 맛세오 4명, 비안네 3명, 실베스텔 2명, 엘리사벳 5명, 요셉 2명.)

- 지구평의원 4명 ,단위봉사자 1명, 단위 양성담당 5명 참석

ㅇ 동서울지구 주관 양성자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비대면 수업 방식을 준비 중입니다.

▣ 구역 보고 〈조복숙 엘리사벳〉

ㅇ 6월2일(화) 지구 구역담당,구역장 연수

(코로나-19로 연기)

▣ 선교 보고 〈윤은섭 체칠리아〉

ㅇ 5월 21일(목) : 지구 단위 선교담당 모임

(코로나-19로 연기)

▣ 정평창보 보고 〈김미령 프란치스카〉

ㅇ 2020년 FJPC 정평창보 "찬미받으소서 혁명" 챌린지 행동에 참여와 연대 요청.

ㅇ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반포 5주년 기념. '찬미받으소서 주간' 시작일(5월16일)에 '찬미받으소서 주간'의 의미에 대한 의식고취를 위해 SNS로 전달.

동서울지구 단위형제회 소식

비안네 형제회

1. 6월 월례회 미사 중에 종신서약식, 유기서약식, 입회식, 지원자 환영식을 거행했습니다.
   - 종신서약자 : 이혜경유스티나, 김현희레오나, 박완세베로니카
   - 유기서약자: 김도현베네딕도, 김효순루갈다, 주현진소화데레사
   - 입회자: 김경희릿따, 유나연로사, 홍승희헬레나, 이상분아가다. 김영희요한나, 이경영콜레타, 송승연데레사, 한지윤에스터
   - 지원자 : 김교선프란치스코, 백승문글로리아, 김남숙마르가리타, 정민숙안젤라, 이유선비비안나, 강원배아벨, 조금주아델라, 선민중아가다
2. 평의원 구역방문: 6/3(수) 10:30-기쁨, 작음구역 방문하였고, 7/1(수) 나눔구역 예정입니다.

6월 월례회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요셉 형제회

1. 코로나 19의 장기적 사태로 인하여, 정기모임을 진행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6월 20일(토) 미사 봉헌과 입회식, 종신·유기 서약 합동 예절을 진행 했습니다.
   참석인원은 최소로 하여 영보신부님, 승급 대상자 11명과 평의원 최소만 참석 하였습니다.
   전체 회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승급 및 서약식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보내 주시는 축하와 기도로서 아쉬운 마음을 달래 보았습니다.
2. 종신서약자 : 2명, 유기 서약자: 3명, 입회 2반 승급자 : 3명, 입회자 : 3명,

☘ 축하드립니다!

글라라 형제회

1. 2020년 6월 14일 234차 월례회에서 6명의 종신서약 예식을 교구사제 이상원사도요한 신부님과 고계영파울로 신부님의 주례로 진행하였습니다.
   - 종신서약자: 김순정안젤라, 송채현글라라, 김지현엘리사벳, 윤여식엘리사벳, 김희수데레사, 이정미마리아.
2. 2020년 5월 13일 선종한 윤정자 님파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월례회에 참석한 69명의 종신서약회원, 초기양성자 3명 및 유가족 7명이 위령기도를 바쳤습니다.
3. 6월 축일 회원 17명의 축하식이 있었습니다.
4. 8대 선거총회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10일부터 회의 및 후보자 탐색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 결정적 퇴회 : 이계선발비나

맛세오형제회

1. 코로나19로 인하여 6월 월례회는 종신 서약 청원자와 평의원, 각 구역장 혹은 구역 대표 한 분만 참석하여 진행하였고 미사 중에 종신서약식을 거행했습니다
   - 종신서약자: 신선자수산나, 강인혜소피아, 이공렬프란치스카, 신자영스테파니아.
2. 초기 양성반은 메일이나 개별 연락을 취하여 과제로 대신하였습니다.
3. 조연주 가브리엘라 (의정부 마르가리타)→ 직장주간으로 전입 오셨습니다.
4. 입회2반 양성 보조교사로 명일구역 권미애 아네스 자매님을 추가로 확정하였습니다.
5. 8월 8일 형제회 선거총회를 앞두고 형제회에 봉사할 평의원들이 잘 선출되기를 바라는 기도문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실베스텔 형제회

1. 6월 월례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65명 참석
2. 종신서약식, 유기서약식 거행했습니다.
   - 종신서약자: 김혜숙아네스, 전미선마리카타리나.
   - 유기서약자: 박용현세실리아, 이관형다니엘, 이성근끌레멘스, 이영옥젬마, 이형숙프란체스카.
3. 제기동 프란치스코의집 후원 안내문 재전송 및 상급 형제회 두달 의무금 면제금을 프란치스코의집에 후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유기서약 유예자 2명에 대한 유기서약 갱신식은 7월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엘리사벳 형제회

1. 동서울지구형제회 신임 평의원으로 봉사자 김광일대건안드레아, 구역담당 조복숙엘리사벳, 청년담당 송태베드로 회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2. 5월 월례회 중에 6명의 지원자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3. 유기서약식 거행했습니다.
   - 김강자 수산나, 김옥이 소피아, 김용환 안드레아, 김정미 안젤라, 박향미 사라, 손원복 루시아, 윤인숙 로사리아, 이미애 베로니카, 이정금 베로니카, 장애경 로사, 정영진 글라라, 진원태 세자요한, 최병윤 안젤라, 최종율 베드로

(14명)